

전우애로 70년을 이어온 한미동맹



5월 21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전 전쟁영웅 랠프 퍼켓 주니어 예비역 대령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명예훈장(Medal of Honor)은 미국 대통령이 수여하는 최고의 훈장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명예훈장을 수여한 건 이날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무엇보다도 이 행사에 한미 정상회담차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을 받았으며, 미국 대통령이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행사에 외국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그

만큼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수여식에 참석해줘 매우 영광이고 대단히 기쁘다면서 한미동맹은 군인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수여식에 함께 할 수 있어 뜻깊고 영광”이라고 화답했으며, 이어 “퍼켓 대령의 희생과 헌신에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며 “참전 용사들의 희생으로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꽃피웠다”고 강조했다.

이날 명예훈장을 받은 퍼켓 예비역 대령은 1950년 8월 26일부터 중위로 한국전쟁에 참전해 같은 해 11월 25, 26일 205고지 점령 과정에서 중공군과 전투를 치렀다. 전투 중 적의 수류탄 파편에 맞아 부상을 당했음에도 전투를 지휘하다 또다시 적의 박격포 2발의 파편에 맞았다. 전황이 불리해지자 “나를 두고 가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했지만, 부하 2명이 이를 거부하고 그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목숨을 구했다.